

# 순천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 분위기 확산

## 4~5개 지역서 입지 후보지 신청 준비중

순천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60일간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신청계획 결정에 관한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입지 후보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신청지 300m 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 원 외의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지 후보지 마감(9월 2일)이 한 달 남은 현재, 향동 A지역, 서면 B지역, 별동 C지역, 월동 D지역 등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 등은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 NIMBY(넵비 :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번 공모는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PIMFY(피피 :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순천시는 올 해 5월 소각시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리더들과 함께 1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아산, 광명의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견학 결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주변지역 성장발전 등을 체감하며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 이번 기회에 편의시설과 인센티브를 받아 마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

식이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역회의에 참석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주변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 설치와 도시개발 촉진, 지역소득사업, 고용창출 등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시켰다.

순천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종 입지선정과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완벽한 시설 설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자금 확보

고흥군이 귀농귀촌을 위한 2019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농업창업 160억원, 주택구입 신축 30억원 등 총 19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라남도 배정된 자금 815억원 중 도내 시군 최대 190억원(23%)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1번지로서 이주 도시민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귀농인은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는 고흥군의 지역맞춤형 귀농정책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흥의 청정자연환경, 영농기반조건 등 지리적조건과 초기 정착자금지원 등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어우러진 결과로 내다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의 높은 고흥화율을 낮추고 인구구조의 건강화를 위한 청년층 유입,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원 조성, 청년유턴 정착 장려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 여수시, 개방화장실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소유자 인센티브·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여수시는 9일 시청 상형실에서 직원 28명이 '개방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마련했다.

이날 직급·성별 구분 없이 모인 참석자들은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고, 정결상태 불량과 시설물 파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봉사단체나 지역 자생단체를 통한 정결유지, 관광안내도 및 버스노선 등에 개방화장실 위치 표기, 소유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용품 지원, 사용자 의식개선 캠페인, 비상벨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화장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할인, 방향제와 손세정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달팽이 수석 감상하세요"

더듬길·숲속의 집 주변에 수석 50여점 전시



보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는 달팽이 형상 등 수석 50여점을 전시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석이 전시된 더듬길(무장애데크길)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8월의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군은 더듬길(무장애데크길) 숲속의 집 주변에 아름다운 수석 50여

점을 전시해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 길을 걸으며 마음을 치유하고 쉬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더듬길(무장애데크길)은 원점회귀형 데크길로 5.8km의 전 구간이 계단이 없어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등 아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속길이다. 해발 200m 지점 물빛언덕의 집 주변 단풍나무, 참나무 숲에서 시작하여 방크스 소나무, 삼나무, 고로쇠 나무숲을 지나 해발 500m의 대단위 편백숲을 경유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매 물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워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휴양림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규일 기자

## 광양시 2019년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받아

교육과학·체육진흥·사회복지 및 환경 등 7개 부문

광양시가 '2019년 광양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광양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분을 찾아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시사(市)에 영원히

보존하고 기리기 위한 상이다.

추천부문은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개발, 문화홍보, 공공복리, 산업경제 등 7개 부문이다.

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100인 이상의 종업원

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개인이면 가능하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수상자 선정은 9월 중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수상 대상자는 오는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하게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구례군, 귀농귀촌체험학습박람회 참가

교육·실습 등 정착지원 체류형 창업센터 홍보 역점



구례군은 최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2019 귀농귀촌 체험학습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체험학습교육협회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함께하자! 활기찬 귀농귀촌, 해피 팜스테이!'라는 주제로 농어촌체험학습관, 귀농귀촌 창업관, 지방향제와 순세정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10개월간 거주하며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

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구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농장 및 농촌체험마을, 임시거주 체험동지 등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며 구례 농특산물 전시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김순호 군수는 코엑스 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구례군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김순호 군수는 "체류형센터는 농업창업이나 농촌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교육과 실습체험을 지원하는 원-스톱 귀농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 교육생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곡성군, 고혈압·당뇨병 예방 위한 순회교육 운영

곡성군 보건요원은 최근 죽곡면 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만성 심뇌혈관질환자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곡성군은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전남과 확대 간호학과,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각각 1명씩 강사를 초빙했다.

교육에서는 자기혈압 및 혈당 알기,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의 필요성, 뇌졸중 및 심근경색 전조 증상과 그 대처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곡성군은 순회교육을 통해 8월 말까지 11개 읍면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